

고려

6.8~15 고려대 Core

유형 → 기출분석 → De.코드

대성학원 부산 **이태훈** 쌤 | **논술 정규**

도입 FAQ ① - 표현력은 어떻게 늘려요?

1. 인문논술 = 간결체

인문논술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술적 글쓰기와 맞닿는다. **명확성, 객관성, 간결성**이 핵심이다.

2. 간결하게 쓰는 법

문장 길이 **한 문장은 30~75자 내외로 적자.**

일문일사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사실만 쓰자.**

예) 언어는 사고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언어를 발전시키기도 하므로, 둘은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언어는 사고를 규정한다. 동시에 사고는 언어의 발전을 촉진한다. 언어와 사고는 상호작용한다.

수식어 최소화 **주관적인 관형어와 부사어를 최소화하자.**

예) 정의로운 사회란 **매우** 다양한 개인들의 욕망과 복잡하고도 불균등한 이해관계를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하게 조정하는 사회를 말한다.

→ 정의로운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제도로 조정하는 사회다. 핵심은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균형을 함께 추구하는 데 있다.

연결어 최소화 **연결어를 최소화하자.**

예) 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단절된다. 그러므로 기술의 발전은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지만 인간관계의 단절을 낳기도 한다. 기술 발전은 이처럼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가져온다.

30/70 법칙 **100자로 쓸 내용을 30자짜리 핵심 문장과 70자짜리 보충 문장으로 나누기.**

예) ①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독창적인 원근법과 회화 기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세계관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관, 즉 인간의 몸은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었다면, 「몽유도원도」는 자연을 화가의 개인적 속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살아 있는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중용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192자)

→ ① 「모나리자」와 「몽유도원도」에서 나타나는 세계관은 상이하다. ② 「모나리자」는 독창적 원근법과 회화 기법을 통해 인간의 몸은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 세계관을 드러낸다. ③ 반면 「몽유도원도」는 자연을 화가의 개인적 속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중용적 세계관을 표현한다.

완급조절 **핵심어가 어려워도 설명은 쉽게.**

예) **세계화**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의 심화와 초국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정치·경제·문화적 영역의 통합성을 증대시키는 현상이다.

→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가 약해지면서 사람·물건·정보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현상이다.

유형 고려대 - 5中3&느슨한 연결고리.

1. 구성

- ① 80분 / 2문항 / 1,400자
- ② 문제 1. 1) [도표] ⑥의 문제 상황 분석. 2) 제시문 5中3 선택 후 1)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③ 문제 2. 제시문 5中3 선택 후 옹호/비판 중 하나의 입장에서 ⑦ **평가**하기.

2. 특징

- ① 타 학교보다 **논리의 여유 폭**이 넓고 해석의 **자율성**이 높다. → **확대해석**이 가능하고 때로는 **필요**하다.
- ② 5中3의 **정답 조합**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정답 제시문도 논리를 적절하게 도출할 경우 2점 감점에 그침.
- ③ 시간이 촉박하다 : 1) 시간이 80분 밖에 안 된다. 2) 단일 제시문 독해는 쉽지만 [①~⑤]와 [⑥, ⑦] 간 연결이 어렵다.
- ④ 예시 답안이 충실 → 예시 답안 포맷에 맞추어 연습
- ⑤ 문제 1, 2가 제시문을 공유하지만 두 문제의 **대논점**은 다르다.

3. 고려대 채점 지침(2026 오전)

① 문제 1

제시문 ①, ②, ③(정답 조합)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비정답 제시문을 활용한 경우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
①	15	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
②	15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
③	15	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④	최고점 13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⑤	최고점 13	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

② 문제 2

‘옹호’의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②, ④**(옹호 정답 조합)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비정답 제시문을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비판’의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③, ⑤**(비판 정답 조합)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비정답 제시문을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옹호의 경우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①	15	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
②	15	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
④	15	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
③	최고점 13	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
⑤	최고점 13	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

기출 고려대 2025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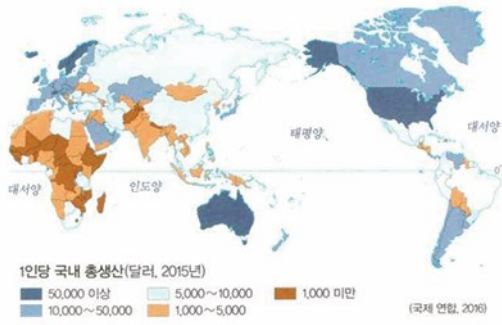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나타내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그림 1]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림 2] 대륙별 인구 이동 변화

[그림 1]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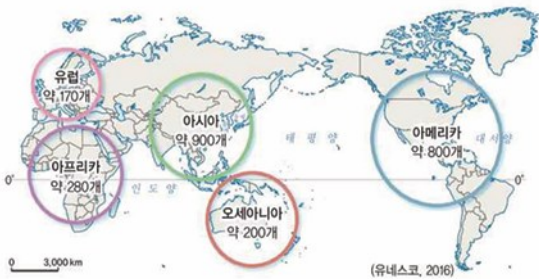
[그림 2] 대륙별 인구 이동 변화



[그림 3] 대륙별 사멸 위기 언어 수

[그림 4]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지표

[그림 3] 대륙별 사멸 위기 언어 수



[그림 4]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여성가족부, 2016.]

구분	우리나라	미국	독일	스웨덴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한다.	60.4	50.5	41.5	14.5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31.8	13.7	21.5	3.5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한다.	55.3	69.1	62.3	82.0

*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국제 지표 항목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자유 시장에서의 거래는 '최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진행되지만, 여기서의 이익은 쌍방을 위한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적 사례를 인용하면, 빵집과 정육점 주인은 손님의 돈과 교환하기 위해 물건을 판매한다. 스미스도 지적했듯이 이 관계는 자기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돈이 필요해서 빵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가 형성되면 서로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 거래가 처음부터 반드시 양쪽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과 수요라는 현실 위에서 거래가 형성되므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유 시장 경제는 이런 상호 이익이 교환되는 격자무늬 구조이다. 각각의 무늬들이 연합하여 애덤 스미스가 지칭한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지고 모든 자원들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기능할까? 이것이 자유 시장의 기적이다. 자유 시장은 자연 발생적이다. 어떤 관료도 타인의 욕구나 그 충족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다. 수많은 개인들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할 방법을 찾는다. 사람들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세탁기 등 혁신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만든다. 이를 통해 자본과 혁신이 형성되고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번영을 이룬다.

①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불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찻잔뚜껑 뚜껑뚜껑,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 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찻잔뚜껑 뚜껑뚜껑,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② “좀 비싼데요.”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
 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 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삼 실링 육 펜스요?”
 옆에 있던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예, 나리.”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삼 실링 육 펜스라!”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중략)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살레 풍의 역사 지붕이 움직였다. 기차를 따라 달리는 원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가팔라졌다.
 물건값이 푹 떨어지고 있었다. 나무 조각상 얼굴들이 마지막으로 승객들의 구매 의향을 묻는 듯 차창 너머로 튀어 올랐다 사라졌다.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세요, 나리!”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한 남자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한 늙은
 원주민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흑인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주었다. 개들도 떠나는 기차를 배웅하듯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토담집의 한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았고 역장은 서서히 살레 지붕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중략)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뭐가. 도대체 왜 그래?”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뜬 들었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냐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욕 펜스에 말이죠.”

여자는 사자상을 남편에게 떠다밀었다.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물론이예요. 그렇지만 이걸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고요.”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③ 선의지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려는 의지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의무이기 때문에 행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행위를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라고 부르면서,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와 구분하였다. 우리는 동정심이나 연민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이나, 장기적 이익과 같은 유용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 행위들이 선의지에서 비롯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의무이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 행위는 지극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 즉 무조건적으로 선한 선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학생은 봉사 활동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그 일을하고, 다른 학생은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그 일을 한다. 칸트에 따르면, 앞의 학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므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를 했음에도 도덕적이지 않다. 반면에 뒤의 학생은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④ 스포츠 스타 ○○○과 가수 △△, 한류스타 □□□와 가수 ◇◇, 월드 스타 ☆☆☆와 배우 xxx. 이들의 공통점은 24시간 자신들을 겨누는 카메라에 연애 현장을 들켰다는 것이다. 이들을 따라다니는 기자를 우리는 '파파라치(paparazzi)'라고 부른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에서 시작돼 타이완과 홍콩 등 중화권을 거쳐 몇 년 전 국내에도 상륙한 파파라치 언론은 어느새 뉴스를 공급하는 사이트들의 '후원'에 힘입어 연예계에서 무시하지 못할 힘을 과시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사진'과 함께 제공되는 뉴스에 대중이 열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스타들의 연애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 간의 사적인 영역인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도 입수해 공개해 버리기도 한다. 이것도 역시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 파파라치 언론의 '특종'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스타들은 괴로워진다. 스타들은 가뜰이나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사적인 영역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한다.

⑤ 이슬람 상인은 8세기 무렵부터 동서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후 이슬람교가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지면서 이슬람 세계는 하나의 무역망을 이루었다. 이슬람 상인은 중국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연결하는 비단길을 따라 낙타나 말 등을 타고 물자를 운반하였다. 바닷길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교역권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여러 지역의 물자가 서로 교환되었고, 문화와 사상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바그다드는 도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원형 도시로 성 안에는 칼리프의 궁전, 왕족과 고급 관료의 집, 모스크 및 관청 등이 있었다. 도시를 둘러싼 원형의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었고, 각 문은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었다. 바그다드는 당의 장안,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와 함께 10세기 무렵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슬람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길목에 있어 동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등지에서 몰려드는 물자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중간 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슬람불이 동서 무역으로 번성한 사실은 그랜드 바자르(시장)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곳에는 4,000개 이상의 상점과 2,000개 이상의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 그랜드 바자르에서는 인도산 캐시미어, 프랑스산 향수, 페르시아산 양탄자, 중국산 도자기, 아프리카산 황금 등이 거래되었다. 그리고 이곳을 왕래한 상인들을 통해 오렌지, 레몬, 커피, 설탕, 면화 등과 그 재배법이 유럽에 소개되었다.

분석 고려대 2025 오후 -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십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 고려대는 정답 조항이 존재한다.
→ 최소 한 제시문은 찬성 측과 반대 측 정답 조항에 중복된다. 즉, 출제자는 이미 제시문 하나를 두 가지 득해값을 도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고려대가 노골적으로 열린해석을 강조한다는 증거이다.

⑦ 자유 시장에서의 거래는 '최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진행되지만, 여기서의 이익은 쌍방을 위한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적 사례를 인용하면, 빵집과 정육점 주인은 손님 돈과 교환하기 위해 물건을 판매한다. 스미스도 지적했듯이 이 관계는 '자기 이익 기반'으로 한다. 돈이 필요해서 빵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가 형성되면 '서로가 이익 얻어' 한다. 거래가 처음부터 반드시 양쪽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과 수요라는 현실 위에서 거래가 형성되므로 상호 이익 극대화할 수 있다. 자유 시장 경제는 이런 상호 이익이 교환되는 격자무늬 구조이다. 각각의 무늬들이 연합하여 애덤 스미스가 지칭한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지고 모든 자원들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기능할까? 이것이 자유 시장의 기적이다. 자유 시장은 자연 발생적이다. 어떤 관료도 타인의 욕구나 그 충족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다. 수많은 개인들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할 방법을 찾는다. 사람들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세탁기 등 혁신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만든다. 이를 통해 자본과 혁신이 형성되고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변형'을 이룬다.

▶ 자유시장은 이기심에 기반하여 자발적이고 호혜적으로 작동한다. 시장 속 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익이 교차할 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①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 봄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 찻잔 찻잔 찻잔 찻잔, // 손이 손을 잡는 말 // 눈이 눈을 쓸어 주는 말 //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 찻잔 찻잔 찻잔 찻잔, //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 국숫집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 공감, 연대, 위로, 공감하는 존재들이다.

⑦ 평가논리

⑦ 비판(정답) : 국숫집 속 사람들은 전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소통, 교류한다. 반면 시장 속 개인은 정서적 연대, 공동체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⑦ 옹호(비정답) : 국숫집 속 사람들의 소통이 공감과 상호 연대를 낳았 듯, 시장 속의 협력 역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교환이 아닌 인간적 교류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① 기준 제시문은 5중3택인 반면 대상 제시문은 하나인 고려대 특성상 대상 제시문을 먼저 읽자.

② 시장 참여자는 이기적이다.

③ [페러프레이징] 상호 이익, 호혜적

④ [심층 득해] 시장 참여자는 이기적이지만 협력적이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⑤ [페러프레이징] 시장의 자율성 속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⑥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한다.

위로 공감 연대 유대 교류 소통 연결 공동체

② 좀 비싼데요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 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 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삼 실링 옥 펜스요?

옆에 있던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예, 나리.”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삼 실링 옥 펜스라!”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중략)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살레 풍의 역사 지붕이 움직였다. 기차를 따라 달리는 원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가팔라졌다. 물건값이 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무 조각상 얼굴들이 마지막으로 승객들의 구매 의향을 묻는 듯 차창 너머로 튀어 올랐다 사라졌다.

“일 실링 옥 펜스에 가져가세요, 나리!”

흙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한 남자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옥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한 늙은 원주민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 시장 속 공급자와 수요자는 최대한의 이윤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 가격, 판매 의사 가격을 조정한다.

⑦ 평가논리

⑦ 옹호(정답) :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시장 속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이익을 봤으며 사회적 잉여도 증가하였다.

⑦ 비판(비정답) : ②의 거래는 경제적으로 자율적으로 보일지언정, 사회적 계층에서 소비자는 백인 지배층, 판매자는 원주민 피지배층이다(이 논리는 문제 1과 연결된다.). 즉 현실 속 시장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할 수 있다.

③ 선의지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려는 의지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의무이기 때문에 행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행위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 부르면서,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와 구분하였다. 우리는 동정심이나 연민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이나, 장기적 이익과 같은 유용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 행위들이 선의지에서 비롯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의무이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 행위는 지극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즉,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선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학생은 봉사 활동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그 일하고, 다른 학생은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그 일을 한다. 칸트에 따르면, 앞의 학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므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를 했음에도 도덕적이지 않다. 반면에 뒤의 학생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 선의지만 오직 그 행위가 옳고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⑦ 평가논리

⑦ 비판(정답) : 시장 속 개인들의 행동은 철저히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선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니며 의무에 알맞은 행위가 될 순 있으나,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아니다.

⑦ 옹호(비정답) :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도 결과론적으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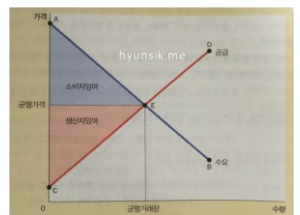
① 바로 거래로 입혀야 한다. 피평가 제시문인 ②이 시장을 논하기 때문이다.

② 처음 가격이다.

③ 구매 의사가 없다.

④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잃어내야 한다.

⑤ 3.6실링에서 1.6실링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거래가 성사되었다. 1.6실링이 시장의 원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이었던 것이다.



⑥ [개념] 자유로운 거래가 사회적 잉여를 최대화하는 이유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거래될 때 극대화되기 때문.

⑦ 선의지에 의한다면 행위의 내재적, 본질적 측면에서 윤리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⑧ 자연적 경향성과 이익에 다른 행동은 도덕적이지 않다.

⑨ [심층 독해] ③은 의무에 알맞은 결과론적 행위와 선의지에 의거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구분했다.

④ 스포츠 스타 ○○○과 가수 △△, 한류스타 □□□와 가수 ◇◇, 월드 스타 ☆☆☆과 배우 xxx. 이들의 공통점은 24시간 자신들을 겨누는 카메라에 연애 현장을 들켰다는 것이다. 이들을 따라다니는 기자를 우리는 '파파라치(paparazzi)'라고 부른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에서 시작돼 타이완과 홍콩 등 중화권을 거쳐 몇 년 전 국내에도 상륙한 파파라치 언론은 어느새 뉴스를 공급하는 사이트들의 '후원'에 힘입어 연예계에서 무시하지 못할 힘을 과시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사진'과 함께 제공되는 뉴스에 대중이 열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스타들의 연애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 간의 사적인 영역인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도 입수해 공개해 버리기도 한다. **이것도 역시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①. 파파라치 언론의 '특종'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스타들은 괴로워진다. 스타들은 가뜰이나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사적인 영역이 줄어**② 들었다고 하소연한다.

▶ 파파라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지만 비윤리적이다.

⑦ 평가논리

⑦ 옹호(정답): 정보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파파라치는 호혜적 구조 속에서 협력 네트워크에 기여한다.

⑦ 비판(정답): 수요와 공급의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파파라치의 활동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마비를 불러 일으키며, **부정적 외부 효과**③를 발생시키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⑤ 이슬람 상인은 8세기 무렵부터 동서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후 이슬람교가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지면서 이슬람 세계는 하나의 무역망을 이루었다. 이슬람 상인은 중국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연결하는 비단길을 따라 낙타나 말 등을 타고 물자를 운반하였다. 비단길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교역권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여러 지역의 물자가 서로 교환되었고, 문화와 사상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바그다드는 도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원형 도시로 성 안에는 칼리프의 궁전, 왕족과 고급 관료의 집, 모스크 및 관청 등이 있었다. 도시를 둘러싼 원형의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었고, 각 문은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었다. 바그다드는 당의 장안,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와 함께 10세기 무렵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길목에 있어 동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등지에서 몰려드는 물자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중간 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스탄불이 동서 무역으로 번성한 사실은 그랜드 바자르(시장)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곳에는 4,000개 이상의 상점과 2,000개 이상의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 그랜드 바자르에서는 인도산 캐시미어, 프랑스산 향수, 페르시아산 양탄자, 중국산 도자기, 아프리카산 황금 등이 거래되었다. 그리고 이곳을 왕래한 상인들을 통해 오렌지, 레몬, 커피, 설탕, 면화 등과 그 재배법이 유럽에 소개되었다.

▶ 동서무역은 상품뿐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여 여러 지역의 문명 발전에 기여하였다.

⑦ 평가논리

⑦ 옹호(정답): 자유 거래를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고 결과적으로 문명이 발전되었다.

⑦ 비판(비정답): 이슬람 상인의 무역의 혜택은 바그다드, 이스탄불에 집중되었다. 자유 시장의 경제적 혜택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시 시장의 독점, 정보 비대칭성을 만연하게 만들어 불공정의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① 확대해석이 가능한 고려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파라치를 무조건적으로 나쁘지 않은 존재로 바라보려 노력해보자. 정보에 대한 대중의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시장 속 이윤 추구가 비윤리와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③ [개념]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 이 영향이 이익을 주면 긍정적 외부효과, 피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응호

제시문 ①은 자유 시장에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모두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① 이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문 ②, ④, ⑤의 내용이 유용하다.

제시문 ②에서 남편은 원주민과 사자상의 가격을 흥정하다 결국 처음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한다. 제시문 ①에 의하면 자유 시장에서 각 개인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된다. 원주민과 남편의 거래는 제시문 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방식과 부합하며, 자유 시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진다.

제시문 ④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뒤쫓아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파파라치 언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①에 의하면 자유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라는 현실 위에서 형성되는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이 극대화된다. 대중의 수요에 맞춰 정보를 공급하는 파파라치 언론은 상호 이익 구조를 통해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시문 ⑤는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망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며 경제적·문화적 번영을 촉진했던 역사적 사례를 보여준다. 제시문 ①에 의하면 자유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별적인 자기 이익이 모여 형성된 상호 이익 구조가 전체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지역과 물자와 사상을 교류함으로써 상호 번영을 이루었던 이슬람 상인의 사례는 제시문 ①을 옹호한다.

<추가>

제시문 ①은 사람들이 국숫집에서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상호 이익과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①에 의하면 자유 시장의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 시장의 직접적 교류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제시문 ①의 주장을 옹호한다.

제시문 ③에서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에 따라 개인의 도덕적 행동이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①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은 의도치 않게 사회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나타나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이 도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①의 주장을 옹호한다.

① 피평가 제시문 ①에 대한 요약으로 원고를 시작한다.

② 본인이 선택한 제시문을 바로 밝힌다.

③ 평가 문단 구성 분석하자. 첫 문장은 기준 제시문 요약, 두 번째는 대상 제시문 평가이다. 고려대 예시 답안은 지속적으로 이 구성을 택하는 중인데, 문단만 200자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면 수험생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태훈이라면 핵심 평가 문장(A의 입장에서 B는 -라는 점에서 T/F하다)부터 배치할 것이다.

<추가> = 고려대가 비정답 제시문을 이용하여 제시한 논리 논평

⑤ Good. 실제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끼리 친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율적 교류는 이기심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적 연대의 씨앗이 된다.

⑥ Bad. ③은 이미 '의무에 알맞기만 한' 행위는 비도덕적이라고 했다. 시장 내 거래는 철저하게 유용성에 의거했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없는데, 출제자가 이렇게 쓴 것은 ③을 반만 읽은 논리이다.

⑦ Good. 사회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고전 경제학에 대한 의문이다.

⑧ Soso. 가능한 논의이긴 한데, 제시문의 상황에 과한 트집을 잡는 것으로 느껴진다.

비판

제시문 ②은 자유 시장에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모두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❶ 그러나, 제시문 ①, ③, ④ ❷를 통해 이를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①에서 큰 푸조나무 아래 국수집은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이 서로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는 연대의 공간이다. 그러나 상호 이익이 교환되는 격자무늬 구조로 묘사된 자유 시장에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이나 정서적 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익에 기초한 경제적 거래에서는 '눈이 눈을 쓸어 주는 말'을 통해 드러나는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시문 ③에서 칸트는 '선의지'로부터 비롯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도덕적이지 못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람들 간의 거래가 상호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무에 알맞은 행위'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시문 ④에서 대중의 소비 욕구와 수익을 얻기 위한 파파라치의 활동으로 인해 스타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보다 상업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시장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자유 시장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항상 충족시키지 않음을 보여준다.

<추가>

제시문 ②에서 남편은 흥정을 지연시켜 가격을 낮추고, 아내는 이 거래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는 자유 시장에서의 거래가 누구에게나 '이익'이 된다는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 강자의 이익은 약자의 희생에 기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❸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거래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⑤에서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한 무역으로 인한 혜택은 특정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는 자유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한 경제적 혜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음을 보여준다. ❹ 자유 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래는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분석 고려대 2025 오후 -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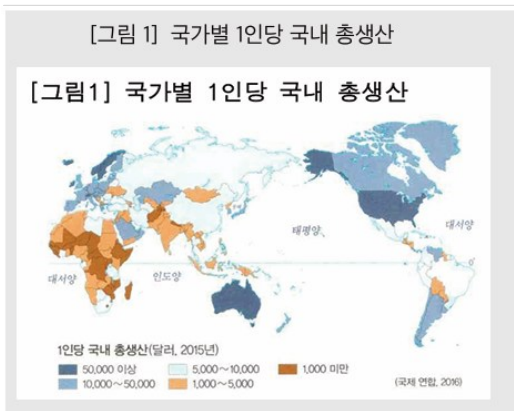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나타내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대입 논술에서 자기 견해 및 해결 방안은 철저하게 제시문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고려대, 성균관대 3번, 한양대는 **외부 맥락**을 도입해도 좋다. 물론 제시문과 엮이는 지점이 존재하는 외부 맥락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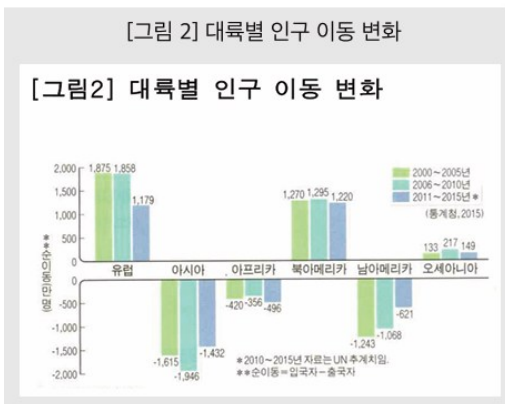
(1) ⑥ 분석

고려대 문항 1⑥의 공통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선 **귀류적 접근**이 필요하다.

① 귀류법은 모순에 의한 증명을 이야기한다. 고려대 문항 1⑥의 귀류적 접근은 네 그림을 모순 없이 온전하게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생길 때까지 키워드 후보군들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소득격차



▶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는 인구 유출이, 선진국이 많은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인구 유입이 많은 경향

[그림 3] 대륙별 사멸 위기 언어 수

[그림3] 대륙별 사멸 위기 언어 수



▶ 언어는 세계관과 문화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멸 위기의 언어가 많다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이 줄어들 우려를 의미

[그림 4]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지표

[그림4]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여성가족부, 2016.]

구분	우리나라	미국	독일	스웨덴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한다.	60.4	50.5	41.5	14.5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31.8	13.7	21.5	3.5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한다.	55.3	69.1	62.3	82.0

*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국제 지표 항목

▶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상황. 사회적 갈등의 위험성 존재

종합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득격차로 인한 이주가 나타나고,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다문화 사회로 인한 갈등, 다문화 수용성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것은 **세계화**이다.

(2) 제시문 독해

다음은 [문제 2]를 풀 때 읽어냈던 ①~⑤의 독해값이다.

[문제2]의 제시문별 독해값	
①	국숫집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 공감, 연대, 위로, 공감하는 존재들이다.
②	시장 속 공급자와 수요자는 최대한의 이윤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 가격, 판매 의사 가격을 조정한다.
③	선의지란 오직 그 행위가 옳고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④	파파라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지만 비윤리적이다.
⑤	동서 무역은 상품뿐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여 여러 지역의 문명 발전에 기여하였다.

①, ③, ④, ⑤는 **세계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거로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②는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 사용하기에는 연결고리가 부족해 보인다. 새로운 독해값이 필요해 보인다.

②는 백인, 원주민의 대립 구도에 주목해야 한다.

남자 ([문제 1]의 수요자)

백인/지배층/서구/제국주의 국가

vs

늪은 원주민([문제 1]의 공급자)

유색인종/피지배층/비서구/식민지

▶ 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착취로 해석해야 한다. 착취의 방향성은 1) 노동 vs 사용자의 불공정(불공정거래) 2) 인종, 계층의 차이에 인한 불평등(식민지화) 둘 중 하나로 해석하면 된다.

(3) 해결방안 제시

기출문제에서 고려대 측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 맥락에 허용적이다. 제시문이 담고 있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지만, 제시문에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나 사례를 끌고 와도 된다.

- 배경지식의 허용

② 2023 모의, 2024 모의는 공통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면[예시] ①에 근거할 때 불공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5년, 26년 기출은 [그림]이 제시하는 개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예시] ①에 근거할 때 [그림 2]가 제시하는 예술 업계 내 분배적 불공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후자의 방식을 기본으로 택하되, 개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안 떠오를 경우 전자의 방식으로 쓰자.

제시문별 독해값과 해결 방안			
정답	①	독해값	국숫집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 공감, 연대, 위로, 공감하는 존재들이다.
		해결 방안과 도출 과정	핵심 point : 공감, 연대, 위로 예시 답안 : 이민자에 대한 만남과 이해의 기회를 늘려 사회적 연대 강화 이태훈T 대안 :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와 공감, 연결을 강화하려는 노력 필요.
	②	독해값	세계화 시대 : 공정 거래의 필요성. → 소유 관계 or 계층 관계로 인한 불평등, 불공정
		해결 방안과 도출 과정	핵심 point : 공정 거래 예시 답안 : 경제 약소국에 대한 공정 거래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태훈T 대안 : 세계화는 선진국의 경제적 침탈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주권을 보호하는 국제 조약 및 협의, 공감대가 필요.
	⑤	독해값	동서 무역은 상품뿐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여 여러 지역의 문명 발전에 기여하였다.
해결 방안과 도출 과정		핵심 point : 무역 활성화 예시 답안 : 무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낙후된 국가 발전. 이태훈T 대안 : 무역 활성화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장 → 선진국과의 불평등, 선진국으로의 획일화 문제 해결.	
비정답	③	독해값	선의지란 오직 그 행위가 옳고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해결 방안과 도출 과정	핵심 point : 의무론, 선의지 예시 답안 : 의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관념을 정하고 이민자를 도덕적으로 대우하려 노력해야 함. 이태훈T 대안 : 세계시민으로서 모두가 선의지를 가진 동등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함. 세계화를 자연적 경향성과 이해득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무론적 관점에서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자.
	④	독해값	파파라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지만 비윤리적이다.
		해결 방안과 도출 과정	핵심 point : 언론의 힘 예시 답안 :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세계화의 문제를 알리자. 이태훈T 대안 : 정보화 시대의 특성(시공간의 한계 X)을 이용하여 세계화의 의의는 살리고 한계는 줄이자.

De.코드 예시 답안

① 제시문 ⑥은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림1]은 국가 간 빈부 격차, [그림2]는 편중된 국가 간 인구 이동, [그림3]은 사멸 위기에 놓인 언어들, [그림4]는 이민자와의 갈등 문제를 보여준다. 세계화 문제는 **개인의 인식 차원 개선과 사회적 차원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② 제시문 ①에서는 국소집 평상에서 마주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낯선 '사람들'에서 '우리'로의 인식 변화를 이룬다. 그림 4의 다문화 사회 문제에서도 이민자와 기존 주민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제시문 ②는 사자상을 구매할 때 발생한 흥정을 통해 공정한 거래에 대한 경제적 인식을 다룬다. 이는 국가 간 경제 격차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백인과 원주민의 신분 차이는 사자상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자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관계에 적용해 경제 강대국과 경제 약소국이 공정 거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향된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제시문 ⑤의 이슬람 상인이 동서 무역을 주도해 바그다드를 거대 도시로 성장시킨 것처럼, 국가 간 무역 활성화로 해결할 수 있다. 무역 활성화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여 낙후된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유출을 줄여 안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추가

제시문 ③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이 결과가 아니라 의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그림 4에 나타난 다문화 수용 태도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의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관념을 상정하고 이민자를 한 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⁹.

제시문 ④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뒤쫓는 파파라치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파파라치들의 행동이 보도 대상자에게는 괴로움을 줄 수 있지만, 뉴스에 열광하는 대중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사멸해가는 언어 현황을 보여주는 그림 3의 경우 언어가 인류 전체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⁹. 따라서 언론의 힘을 이용해 사멸해가는 언어의 문제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그림 1~4]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첫 문장에 '세계화'로 밝혔다.

② 각 제시문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본인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의 특징을 묶어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시 답안 작성자는 [개인 vs 사회] 도식을 이용했다.

③ 해결방안 문단 구성 분석하자. 첫 문장은 기준 제시문 요약, 두 번째는 해결방안 제시이다. 고려대 예시 답안은 지속적으로 이 구성을 택하는 중인데, 문단만 200자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면 수험생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태훈 T라면 두괄식으로 핵심 해결 방안을 먼저 배치할 것 같다.

④ ③에서 내가 원했던 두괄식 문장이 이와 같다. ⑤의 요약과 해결방안의 핵심 요지(무역 활성화)를 한 문장에 제시했다. 당연히 뒤문장은 무역 활성화의 방안과 이점을 구체화한 문장이 나올 것이다.

<추가> = 고려대가 비정답 제시문을 이용하여 제시한 해결방안 논평

⑤ Good. 칸트는 이성에 의해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를 논한다. 따라서 세계시민의 자세로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는 이태훈 T 입장에서 출제자가 제시한 ⑤기반 논리보다 좋아 보인다.

⑥ Bad. 두 가지 문제가 있다.

- 1) 대상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파파라치의 행동을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이코패스적이다.
- 2) 언론의 힘으로 세계화 문제를 홍보는 지나치게 파편적인 논리이다. 이미 비정답 제시문이기 때문에 도출 가능한 논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